

도·농복합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Strategic Plan of Public Librar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

장 덕 현 (Durk Hyun Chang)**

구 본 진 (Bon Jin Koo)***

초 록

대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반적인 도시지역과는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가 부산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지식문화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기장군은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소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기장군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하였다.

ABSTRACT

Being one of the municipality belonging to a large metropolitan city, there are areas with a special environment of rur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urban areas. Gijang-gun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a good example. Although it maintains the highest level of the number of patrons per public library and the number of books per capita in Busan, and is also promoting various projects to strengthen the knowledge and cultural competitiveness, in Gijang-gun, a Complex Area where rural and urban areas coexist, most of the resources a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and cultural facilitie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are lacking in relatively few rural area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rives to enhance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Gijang-gun's public librar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patrons as viewed through their urban-rural complex environment.

키워드: 공공도서관, 농촌도서관, 발전계획-공공도서관, 부산광역시, 도서관정책

Public library, Rural library, Public Library Strategic Plan, Busan, Library Policy

* 이 논문은 기장군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부산광역시 기장군, 2020)를 요약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bjkoo@pusan.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6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125-147,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2.125>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등 국가도서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기반 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향후에는 도시 지역의 경우 기존 공공도서관의 재구조화, 그리고 주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다수의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신규 건립하는 방향의 투트랙 방식의 접근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구역상 대도시에 속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농지역 공공도서관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대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이지만,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특성에 더하여 농촌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

민의 지식문화경쟁력 강화와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인 기장군은 대부분의 자원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소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며, 도서관 수에 비해 사서 배치에 소홀하여 공공도서관 1관당 사서수 측면에서 부산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기장군 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 기장군 내에는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추가로 5개의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개관 예정 도서관의 위치는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정관읍으로, 대표적 문화소외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일광면과 장안읍 지역에 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기장군 내 모든 읍·면단위 행정구역 내에 도서관이 위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장군 모든 행정구역 내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즈음하여 공공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고 도농복합지역 도서관으로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장군 지역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과 정책 및 서비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수립한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및 프로젝트들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상 지역의 인구 규모나 경제·사회적 환경 등은 다르지만 모두 중·장기 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교육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관련 자료로는 “강원도 교육문화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곽동철, 윤정옥, 김용환, 2020),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과제”(윤혜영, 2019), 「김포시 도서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김포시, 2019),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하남시, 2019),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미래 정책개발 연구」(충청남도, 2018) 등이 있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총 400명이었으며,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도서관 운영시간 적정

성 여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후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 등 기장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참조로 하여 기장 군민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독서 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장군 도서관 현황과 이용 실태, 미래 전망 분석, 군민 의견 수렴, 대내외적 환경 분석, 도서관 주요 추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도농복합지역 도서관으로서의 기장군 도서관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 국내외 도서관 환경 변화 분석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도서관을 둘러싼 대표적인 환경 변화로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도서관 서비스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요 세부 내용
사회 문화적 환경	인구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 오너스 시대, 다문화사회
	지역 및 사회	지역 불균형 가속화, 지역의 쇠퇴와 소멸, 급격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갈등 증폭
	경제	저성장 시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및 소득의 양극화
	기술	초지능화, 초연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변화, 포스트휴먼시대 도래
서비스 환경	수요	독서인구의 감소, 선호 매체의 변화, 이용자 변화, 욕구의 다양화
	공급	정보매체간 경쟁 심화, 도서관 생태계와의 협력 난항,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전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로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도서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과 사회변화에도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1) 사람에 대한 포용성, 2) 공간의 혁신성, 3) 정보의 민주성을 3대 핵심가치로 하여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의 4대 전략 방향(목표)과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은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서비스 확장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강조하고, 정보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등 정보복지의 실현과 더불어 인력 충원, 역량 강화 및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등 도서관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화된 현대 사회에 맞추어 문화서비스 확대와 공간의 개방성 확대 등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의 도서관 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서관 패러다임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AI+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로 도서관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식문화창조 공간으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화된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디지털도서관이 아닌,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빅테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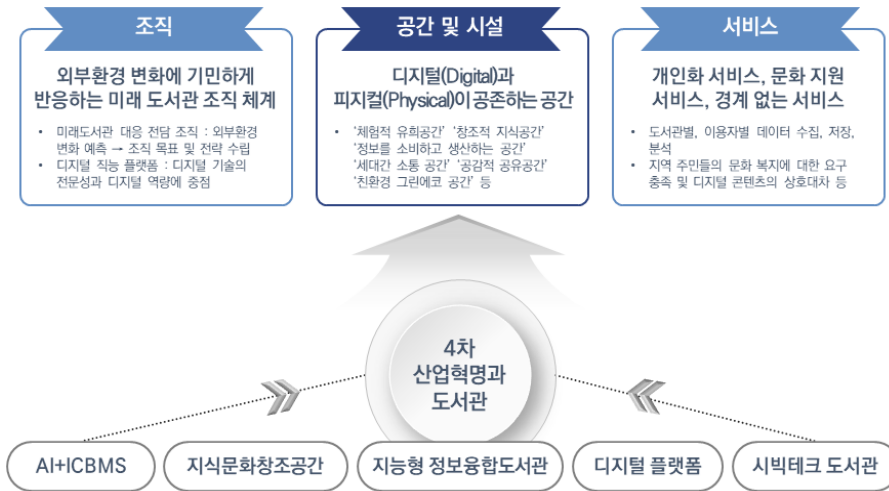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된 역할 위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요소와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조직, 공간 및 시설,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3. 기장군 도서관 현황 분석

3.1 기장군 도서관 현황

2020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는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기장군 도서관의 현황을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 1관당 사서수,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인구수, 도서관 1관당 장서수, 국민 1인당 장서수로 구분하여 전국 및 부산 평균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기장군 도서관의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24,256명으로 전국 평균(45,723명) 대비 53.0% 수준이며, 부산 평균(77,587명) 대비 30.8%로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0,612명으로 부산 평균



〈그림 1〉 4차산업혁명과 미래도서관



〈그림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위치 및 행정구역

〈표 2〉 기장군 공공도서관과 전국 및 부산 평균과의 현황 비교(2019년 기준)

구분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명)	사서 1인당 봉사 대상인구수(명)	국민 1인당 장서수(권)	1관당 사서수(명)	1관당 장서수(권)	
전국	45,723	10,187	2.22	4.5	101,477	
부산	77,587	12,574	1.74	6.2	134,895	
기장군	평균	24,256	10,612	2.70	67,111	
	전국대비(%)	53.0	104.1	121.6	51.1	66.1
	부산대비(%)	31.2	84.3	155.1	37.0	49.7

(12,574명)보다 적지만 전국 평균(10,187명)과 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장 서수는 2.7권으로 전국 평균(2.22권) 및 부산 평 균(1.74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관당 사서수의 경우, 기장군은 2.3명 으로 전국 평균인 4.5명 및 부산광역시 공공도서 관 평균인 6.2명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관당 장서수의 경우에도 기장군은 67,111권으로 전국 평균(101,477권) 및 부산 평 균(134,895권)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즉, 현재의 인구에 비해서는 기장군 도서관의 현황이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 장군의 지난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기장군의 총 인구 증가 전망세를 고려하면 봉사 대상인구수의 증가를 대비한 사서 인력과 장서

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장군 도서관은 기장군 행정 구역인 5개 읍, 면 중 정관읍, 기장읍, 철마면에 위치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인 정관읍에 2개관(정관도서관, 정 관어린이도서관), 중심지인 기장읍에 4개관(기 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 철마면에 1개관(고촌어울림도 서관)이 있으며, 이들 도서관은 모두 지자체 소 속 도서관으로 기장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도서관이 모두 2010년 이후에 건립되어 상대적 으로 시설환경 여건이 좋은 도서관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4개의 도서관은 2015년 이후 에 건립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도 서관이 개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도서관의 기본 현황은 <표 3>과 같다.



<그림 3> 기장군 행정구역 및 도서관 분포

〈표 3〉 기장군 공공도서관 기본현황

도서관명	위치	개관일	연면적 (㎡)	열람석수 (석)	장서수 (권)	이용자수 (명)	직원(명)		예산 (천원)
							사서직 (정규직)	그 외	
정관도서관	정관읍	2015.08.04	7,371.33	977	174,338	139,131	6	17	2,451,413
정관어린이도서관	정관읍	2013.06.01	827.95	136	42,537	11,303	1	7	360,687
고촌어울림도서관	철마면	2020.05.29	710.9	194	9,642	773	1	7	354,679
기장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장읍	2003.02.28	2,091	524	179,978	44,733	5	11	688,881
		2007.04.24	422.75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읍	2016.07.21	982.79	265	35,203	13,419	2	9	384,451
기장디지털도서관	기장읍	2011.07.15	409.5	103	18,427	4,388	0	2	37,890
내리새라도서관	기장읍	2020.05.29	714.01	183	9,654	828	1	7	357,086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시설, 자료, 사서의 기준 충족 여부를 「도서관법 시행령」과 「한국도서관기준」, 「IFLA/UNESCO 인력 산출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관 시설의 경우, 고촌어울림도서관, 기장도서관, 정관도서관은 기준 면적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과 정관어린이도서관의 경우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수의 경우에는 기장디지털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법 시행령」의 도서관 자료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서 기준에는 정관도서관과 기장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도서관과 기장도서관은 기장군 내에서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기장도서관은 179,978권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정관도서관이 174,338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도서관을 제외

한 나머지 도서관의 소장 장서수는 전국 평균 수준(101,477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하며, 고촌어울림도서관과 내리새라도서관의 경우,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서가 부족하였다. 현재 일광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신규 건립 도서관의 개관 장서 구축 시 적정 규모의 개관 장서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수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전국 평균¹⁾ 수준 정도로 사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 45명의 사서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현재 인원은 16명으로 필요 인력 대비 29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IFLA/UNESCO 인력 산출 모델」 기준을 적용하면, 총 76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현원 대비 58명이 부족하다.

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주제별 장서 비율은 문학 분야가 42.2%

1) 2019년 법정사서평균배치율(0.181844401)을 적용.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회과학이 14.8%, 역사가 8.5%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로는 정관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문학, 사회과학, 역사 순으로 장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관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196개의 프로그램이 1,739회 운영되었고, 총 참여 인원은 94,180명으로 회당 평균 54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60% 이상이며, 주 1회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52.0%로 대부분 정기적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강좌 형식이 54.6%, 공연/전시가 13.8%로 많이 나타났고, 내용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독서와 만들기 또는 그리기 등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형태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정관도서관과 기장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기장군 도서관 이용자 조사 결과

3.2.1 응답자 일반사항

기장군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실제 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다. 이용자 조사에 응답한 주민은 400명이었으며, 도서관별로 기본 40부씩의 설문지를 할당한 후 나머지 120부를 도서관 규모와 이용자 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58명(39.5%), 여자가 241명(60.3%), 연령은 40대가 117명(2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97명, 24.3%), 30대(78명, 19.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95명, 23.8%), 일반 사무직(75명, 18.8%), 대학(원)생(56명, 14.0%)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응답자 거주지의 경우, 기장읍(157명, 39.3%), 정관읍(135명, 33.8%), 철마면(38명, 9.5%), 일광면(22명, 5.5%), 장안읍(4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3.2.2 도서관 이용 현황

기장군 공공도서관 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도서관은 정관도서관과 기장도서관이었으며, 기장군 소재 7개 도서관 중에서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도농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도서관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빈도는 주 2~3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6.5%(266명)가 주 1회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시 방문하기가 쉽고 편리한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향후 도서관 건립 시 접근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이용 시에는 도보(176명, 44.0%) 또는 자가용(154명, 38.5%)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미만인 235명(58.8%), 15분~30분이 111명(27.8%)으로 나타나 대부분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농지역의 특성상 도보와 자가용 이용 시 소요되는 시간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 이용 목적은 자료(책, 신문, DVD 등)를 이용하기 위한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자격 등 개인공부를 위해(26.6%),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기 위해(9.1%),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주 이용 시설(공간)은 종합자료실(43.7%), 자유열람실(26.4%), 어린이(영·유아)실(13.1%) 순으로 나타났다.

3.2.3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도서관 서비스를 자료, 직원, 이용 및 접근성, 시설 및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자료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도서관 이용 및 접근성과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세부 측정 요소별로 살펴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도서관 시설의 청결 및 쾌적 정도(4.93), 디지털 자료의 질(4.79), 도서관 자료 검색 및 이용의 편리성(4.76) 순이었으며, 가장 불만족하는 항목은 운영시간의 적절성(3.83), 도서관 내부 공간의 배치와 넓이(4.09), 인쇄자료의 양(4.11) 순이었다.

중요도 세부항목의 경우, 도서관 시설의 청결 및 쾌적 정도(4.81), 도서관 접근성(위치)(4.73), 도서관 자료의 검색 및 이용의 편리성(4.73)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수(4.01), 도서관 운영시간의 적절성(4.15), 직원의 전문성(4.25)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만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항목에 대하여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중 교육·문화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을 중요하게 생각(매우 중요하다, 227명, 56.8% : 중요하다,

<표 4>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와 중요도 측정 요소 및 결과

구분	내용	만족도 평균	중요도 평균
자료	인쇄자료의 양과 질, 디지털자료의 양과 질, 자료의 최신성	4.53	4.48
직원	직원의 수, 직원의 전문성, 직원의 친절정도	4.66	4.25
이용 및 접근성	운영시간의 적절성, 접근성(위치), 자료 검색 및 이용	4.37	4.53
시설 및 환경	내부 공간의 배치와 넓이, 시설의 청결 및 쾌적 정도, 편의시설	4.42	4.61

139명, 34.8%)하고 있으며, 추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매우 필요하다, 77명, 19.3%; 다소 필요하다, 99명, 24.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매우 만족, 80명, 20.0%; 만족, 231명, 57.8%)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용 의사에 대한 응답도 89.3%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세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2.4 도서관 프로그램의 이용과 평가

전체 응답자 중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응답자(자주 이용한다, 26명, 6.5%; 가끔 이용한다, 97명, 24.3%)보다 이용해 본 적 없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277명, 69.2%)가 많았으며,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140명(35.0%)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의 이용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87명, 2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프로그램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관심 주제의 프로그램이 없어서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가 각각 10.8%(43명)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홍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의 수준 및 전문성에 대하여는 만족하나 프로그램 종류의 다양성, 홍보,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3.2.5 도서관별 선호 특화 주제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한 운영 및 관리를 의미하며, 도서관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특성화 자료로 특성화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7). 이에 따르면 기장군 내 도서관 중 정관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기장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따라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특화서

<표 5> 도서관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종류의 다양성	내용 충실성	홍보	시설	이용자 요구 반영	차별화	전문성
평균	3.44	3.55	3.34	3.61	3.51	3.34	3.50

비스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두 곳의 도서관은 제외한 나머지 5개 도서관과 향후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일광도서관에 대하여 해당 도서관의 지역적 환경 및 주요 이용자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각 도서관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특화 주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이용자들은 도서관 특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29.4%), 다음으로 특화 주제와 이용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 기획(21.2%)을, 세 번째로 특화 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14.7%)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특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화 주제에 관련된 양질의 자료와 서비스/프로그램 기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특화 주제의 선정 및 특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인구 특성(연령, 성비 등), 이용자 수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 주제를 선정하고, 특화 주제에 대한 양질의 자료 구비, 특화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등 특화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

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6 도서관 홍보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도서관 홍보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도서관의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문자 알림 서비스(116명, 29.0%)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도서관 SNS 서비스 운영(107명, 26.8%)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운영,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도서관 홍보를 위한 새로운 채널 개설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도서관 SNS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비이용자 집단 및 잠재이용자 집단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가장군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성이 있는 공간으로 도서, 잡지, 신문 등을 조용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221명, 28.0%)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카페 등 휴식과 만남의 공간(156명, 19.8%), 다양한 강연, 전시, 각종 문화 강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153명, 19.4%)에 대해서도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서관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

<표 6> 도서관별 특화 서비스 선호 주제

구분	1순위	2순위	기타 주제
정관도서관	청소년	문화	예술, 영어(외국어), 건강, 생태/환경, 역사, 다문화, 스포츠, 농/수산업, 메이커스페이스
고촌어울림도서관	노년층	생태/환경	
기장도서관	청소년	향토자료	
대라다목적도서관	청소년	문화	
내리새라도서관	청소년	문학	
일광도서관	여행/관광	청소년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23.8%), 독서교육 프로그램(23.7%), 문화/예술 프로그램(23.4%)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도서관별 주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프로그램 요구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장군 도서관 발전 전략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수가 확충된 것에 비해 균형적 발전이 미흡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도 도서관 접근성, 장서 및 사서 부족, 획일화된 도서관 운영 및 다양하지 못한 도서관 프로그램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 거점도서관인 정관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군민의 도서관 서비스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7개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최상의 정보서비스 및 독서진흥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4.1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4.1.1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2023년까지 도서관을 1,468개관으로 확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약 3만 5천명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 기장군의 경우,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가 24,256명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기장군 내 도서관 7개관 중 5개관의 면적이 1,000㎡이하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규모가 작은 특성이 있다. 또한 군민 1인당 장서수는 2.7권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양적 기준은 달성하고 있으나 1관당 장서수는 전국 및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 건립 및 장서 수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장군 내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장군 관내에서 일광면(현재 도서관 건립 추진 중), 철마면, 장안읍 등 기존 도서관 수와 규모, 이용자 수, 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2010년 이후에 건립되어 시설 및 공간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나, 기장도서관의 경우 향후 4-5년 이내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발생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건립 후 20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3년경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보다는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별 특화 주제, 지역사회 요구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공간 기능의 변화와 확장을 위한 일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서관별 방향성 검토 후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누구나 도서관 공간을 공평하게 활용할

기 위한 포용적 개방공간의 지속적 확대를 정책 과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도서관과 기장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은 연면적이 1,000㎡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공간인 열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도서관 공간이 개인의 점유로 인한 문제점이 누적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누구나 도서관 공간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포용적 개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단독 개인학습실을 배제하고, 학습공간을 자료 열람공간에 포함시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열람실 공간(학습 공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관 예정인 일광도서관은 가족을 특화 주제로 가족단위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 급속한 정보화 정책과 디지털 정보 혁명이 낳은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도 다원화된 공간 구성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관의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공간의 기능 또한 개방형의 통합된 정보 공간으로의 가치를 더하고, 정적인 개념의 공간 구성보다는 액티비티 형태의 학습과 다양한 도서 서비스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한 형태로 진보되고 있다. 따라서 기장군 공공도서관 역시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서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서 지역 생

활문화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와 어른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학습 및 휴식 공간, 문화체험·향유 공간의 확대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장군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과 도서관별 특화 주제에 부합하는 공공도서관 복합화를 추진하고, 계층,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개방적인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및 가족 이용자를 위한 게임룸 및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구성하고, 도서관 로비를 실내 놀이터를 겸한 휴식 공간으로 아이와 어른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하되, 어린이 자료실 내에 게임룸(블록방), 어린이를 위한 레고, 어린이용 보드게임 등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경우, PS4, Xbox One, Wii U 및 보드 게임 등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AR, VR, 홀로그램 등 실감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일광도서관의 개관장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본장서 3,000권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는 행정자치구역의 봉사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최소기준이며,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에서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목표를 2023년 까지 국민 1인당 2.5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광도서관의 전체 소장 장서를 43,112.5권 이상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2020년 6월 기준 일광면의 인구수는 17,245명임). 한편, 기장군 지역은 동해안에 면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재난 발생 시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피난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한 재난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4.1.2 사서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기장군의 경우 사서 1인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10,000명 규모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제시한 '인구 2,500명당 1명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도서관은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그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수를 2023년까지 6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장군은 도서관 1관당 사서수가 2.3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특히 양적으로 도서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기장군의 경우, 이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인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서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도서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전국 평균 수준에 준하여 산출한 최소 필요 인력의 확충(〈표 7〉 참고) 계획이 필요하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도서관 연면적과 장서라는 2가지 기준으로 사서직원의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한 사서 수도출을 위해 법정사서평균배치율을 적용하여 기

〈표 7〉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 기장군 도서관 필요 사서 인력수

(단위: 명)

구분	연면적(㎡)	장서수(권)	법정사서수	필요사서수	현원	차이
정관도서관	7,371.33	174,338	54	13	6	Δ7
정관어린이도서관	827.95	42,537	12	5	1	Δ4
고촌어울림도서관	710.9	9,642	6	4	1	Δ3
기장도서관	2,513.75	179,978	39	10	5	Δ5
대라다목적도서관	982.79	35,203	10	5	2	Δ3
기장디지털도서관	409.5	18,427	7	4	0	Δ4
내리새라도서관	714.01	9,654	6	4	1	Δ3
(개관예정)일광도서관	3,200	20,000	14	6	-	Δ6
계	13,530.23	469,779	134	51	16	Δ35

※ 필요사서수의 경우, 2019년 법정사서평균배치율(0.181844401)을 적용하여 산정

준 인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재 인력과 비교하였다.

건립예정인 일광도서관의 경우, 연면적이 3,200㎡이며, 기본장서량을 20,000권으로 가정했을 때, 14명의 사서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 6명 이상의 사서인력을 필요로 한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기장군 지역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은 16명인 반면, 현재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장서수 등을 고려할 때, 기본인력을 포함한 적정 규모는 최소 45명으로 최소 29명 이상의 증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조직 개편

기장군 도서관 업무는 기장군 교육행복국 산하의 도서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정책팀, 정관도서관팀, 기장도서관팀,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운영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각 팀 별 담당 업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정관도서관팀과 기장도서관팀의 두 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 부담이 과다할 뿐 아니라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새로운 직제 편성 및 직무 재편 등 기관 정체성 확립과 정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군 본청에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제반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과의 신설, 정관도서관을 기장군 거점도서관(관장: 사서사무관)으로 지정하고, 기장도서관과 일광도서관을 권역거점관(관장: 사서주사)으로, 그리고 소규모 도

서관들은 분관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에 법정 인력 최소 기준인 사서 3명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장군 공공도서관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2 공공도서관 접근성 개선

4.2.1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공평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도보 및 자가용 접근성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렵거나 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도서관이 개관하지 않는 지역과 도서관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을 방문하여 순회문고, 책배달서비스,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2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서비스 확충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서관은 기본적인 문화서비스 시설로 기능하므로, 보다 세심한 환경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서관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문하기 편리한 위치'이며, 도서관 이용 및 접근성 측면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자료서비스, 경영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관리 등 도서관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개발과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운영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증가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스마트 도서관 및 U-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환경과 기술의 변화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 및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의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은 최신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로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실을 Media Commons 개념의 공유 공간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도서관, U-도서관 등 무인 대출 서

비스 기기 설치를 통한 U-Library 확대와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용 전자책의 구입과 제공, 챗봇 등 채팅 플랫폼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등의 도서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특화도서관 운영

4.3.1 지역 특성 및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 인구 구성의 변화와 주민들의 정보요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노령 인구의 여가와 학습, 재취업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기장군의 현재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와 중·장년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문화강좌, 인문학,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지역 연계형 소외계층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방형 및 통합형 노인서비스 공간 구성 등 중·장년 및 노인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와 독서 동아리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강화 및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조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법」 제43조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는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산어촌주민의 네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 군인, 환자, 사용자 등 정보 획득에 불리한 처지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를 정보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친밀감 형성 등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각 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전담사서의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나 협력을 통하여 자원과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문화, 정보, 복지의 종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제약을 극복하여 삶의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장군 관내 1개의 공공도서관을 '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3.2 도서관별 특화 장서 개발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공공도서관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조사와 기장군 및 기장군도서관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장군내 7개 공공도서관과 개관 예정 도서관 1개관에 대하여 특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도서관의 지역적 환경 및 주요 이용자 등 도서관의 특성과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특화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 주제의 장서개발, 특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특화 주제와 관련된 서비스/프로그램 기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별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도서관: 교육/문화 특화도서관

- 정관도서관은 기장군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서 기장군 지역 주민에게 특화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 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를 특화주제로 선정하였다.
-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담인력을 두고 교육 및 강좌를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 외에 개인 및 동아리들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과 커뮤니티 이용 공간을 구성한다. 이들 공간의 경우 활용성을 고려하여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정관어린이도서관: 어린이 특화도서관

- 정관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어린이' 이용계층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

관이 위치한 정관읍은 30~40대 연령의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연령대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특성 상 주 이용자의 측면에서 관련 장서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하다.

- 어린이의 요구가 많은 만화, 그림책, 영어(외국어)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촌어울림도서관: 노년층/건강 특화도서관

- 어르신 등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잠재 이용자인 노년층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건강 정보 제공 및 실버세대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노년층/건강'을 특화 주제로 선정한다.
- 노년층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스페이스(공간), 건강정보(자료), 어르신 대상 서비스(프로그램)를 고루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도서관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다. 노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재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열람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 스페이스로 구성하고 노년층의 독서와 쉼을 위한 공간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화 주제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노년층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정보 요구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장도서관: 향토자료 특화도서관

- 현재 농업, 원예를 특화 주제로 하고 있으나, 해당 주제의 신간 자료가 적고 다른 도

서관과의 차별점이 없어 적합한 특화 주제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적 연계성이 높은 주제로 주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장도서관이 위치한 기장읍은 군청 소재지로 행정 중심지이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많은 문화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어 특화 주제로서 향토자료의 적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화 주제로 '향토자료'를 선정, 향토자료 전담 인력 배치 및 향토자료 코너(서가)를 운영하며, 향토자료 코너(서가)의 경우, 자료의 지속적 수집을 통해 향후 '향토자료실'로 확대가 필요하다.
- 향토자료의 수집은 기장군과 관련한 지리적, 역사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장군 주요 인물 등 기장군 지역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인물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기장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까지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향토자료의 경우,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기장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향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장디지털도서관: IT 특화도서관

- 기장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이라는 서비스 내용으로 현재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IT'를 특화 주제로 하여 4차산업혁명 관련 자료 등 특화 주제의 장서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단순 인터넷 검색을 위한

디지털코너를 4차산업혁명 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군청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IT 기술 체험 공간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장디지털도서관은 기장군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행정자료 큐레이션 등을 통해 군정 홍보 및 도서관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좋다.

6) 대라다목적도서관: 청소년 특화도서관

- 주변에 학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 이래 '청소년'을 특화 주제로 하여 청소년 도서를 집중 보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른 도서관과 달리 '청소년'을 별칭기호로 부여하여 일반도서관과 구분하여 서가를 운영 중에 있다.
-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 및 주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할 때, 특화 주제로 '청소년'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청소년 진로 교육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진로교육, 강연, 멘토링, 동아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내리새라도서관: 글로벌 도서관

- 가장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으로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과 어린이 집 등이 있어 어린이 이용자가 많으며,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해외자료 등을 확보하여 특화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근에 위치한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만하다.

8) 일광도서관: 가족친화형 도서관

- 일광도서관은 2022년 이후 개관 예정으로, 가족단위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지향하므로 '가족'을 특화 주제로 선정한다. 가족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위해 가족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 레고, 보드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룸, 실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 공간, 실내 놀이터 및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로비 등 도서관 시설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자 문화 체험 및 향유 공간을 제공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 신규 공공도서관이니 만큼 새로운 컨셉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반열람실(학습실)은 설치하지 않고 가족친화형 공간으로서 AR/VR등을 비롯한 IT 콘텐츠 실감체험 공간 조성, 패밀리스페이스(가족 전체가 게임, 보드게임, 독서, 취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가족 간 소통을 위한 가족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4.3.3 공동체 자료 아카이빙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향토자료 등 지역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은 사회적 기억의 장치로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American Memory’, 싱가포르의 ‘Singapore Memory Project(SMP)’ 등 국내외 많은 도서관들이 국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향토자료 콘텐츠를 수집하고, 도시개발로 인하여 사라지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록을 수집, 축적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장군은 지역 향토자료가 풍부하고, 관내 신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화 및 공동체의 유실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 지역 고문헌 및 향토자료 콘텐츠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관 기반의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간 소장 고문헌 수집 및 디지털화, 족보자료실 설치·운영, 향토자료실 설치,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기장군의 기록물에 대한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4 홍보 및 마케팅+협력

홍보는 단순히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리는 작업이 아니라 도서관이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기장군 소재 7개 공공도서관 중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도 도서관의 존재 유무를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모른다’(277명 중 43명, 15.5%)는 응답이 많아 도서관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서관 홍보 방안으로 홈페이지 운영보다 카카오톡 등 문자 알림 서비스(400명 중 116명, 29.0%)와 도서관 SNS 운영(400명 중 107명, 26.8%)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SNS를 활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나 카드 뉴스를 제작,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홍보 강화와 더불어 홍보 매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SNS 개설 및 운영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로 활용하고, 비이용자 집단 및 잠재이용자 집단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SNS 서비스 운영 방안 등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홍보를 담당할 인력 확보와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SNS, 유튜브 등 이용자의 선호와 요구에 맞춘 소셜미디어 채널의 개설 및 운영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가 부산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지식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등 국가도서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동농지역의 특성,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관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장군 및 관내 도서관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자 요구 변화 조사,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국가도서관정책 분석, 기장군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통하여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지향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현재 기장군에는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개 도서관이 모두 2010년 이후에 건립된 도서관으로 부산시 내의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환경 여건이 좋은 편이며, 4개의 도서관이 2015년 이후에 건립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이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학교에 인접하여 있다. 반면, 동농지역의 특성상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으로의 이동보다는 자가 차량 이용이 많고 향후 기장군의 인구 증가세와 관내 공공도서관 간 장서나 인력에 상당히 큰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서 인력 및 장서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장군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도서관 홍보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장군민들은 대체로 공공도서관 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거리와 방문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자료와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도서관 이용 및 접근성과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및 공간 측면에서는 자료 열람 공간, 북카페 등 휴식과 만남의 공간, 다양한 강연, 전시, 각종 문화 강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장군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기장군의 경우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특화도서관 등 주민의 일상적 요구에 밀착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기장군이라는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장군 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기장군민의 정보/문화 향유, 독서와 평생교육을 위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국가도서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장군의 내 공공도서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기장군 내에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설립될 때 전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윤정옥, 김용환 (2020). 강원도 교육문화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21-39.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21>
- 김포시 (2019). 김포시 도서관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김포: 김포시.
- 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도서관법 시행령. 제31204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윤혜영 (2019).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69-9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069>
- 충청남도 (2019).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미래 정책개발 연구. 대전: 충청남도.
- 하남시 (2019).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하남: 하남시.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cheongnam-do. (2019). 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Policy for the Future. Daejeon, Chungcheongnam-do.
- City of Gimpo (2019). Long/Mid Term Gimpo City Library Advancement Plan. Gimpo: Gimpo-si.
- City of Hanam (2019). Long/Mid Term Hanam City Library Advancement Plan. Hanam: Hanam-si.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3).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wack, Dong Chul, Yoon, Cheong Ok, & Kim, Yong Hwan (2020). A research on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c plan for developing Gangw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3), 21-39.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2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9).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y, 2019.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policies and future

- directions in library spe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019).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9~2023). Sejong: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
- The Enforcement Decree of Library Act. Chapter 31204.
- Yoon, Hye-Young (2019).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69-9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069>

